

날로 가열되는 12·3 내란 순응 의혹 공방

민주 이원택 의원, 전북소방본부 문서 근거 김관영 도지사에 의혹 재차 제기… “공개토론회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지난 2024년 12.3위헌위법계엄 사태와 관련, 전북도에서 국회 국정감사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기록과 서류가 사실인가 아니면 말이 우선인가를 놓고 내란 순응 의혹 공방이 날로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전북소방본부 문서를 근거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내란 순응'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공개 토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 소방본부 문서는 전북도가 계엄 상황에 순응하며 대응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며 "김관영 지사는 더 이상 숨지 말고 도민 앞 공론장에 나와 맞장 토론회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소방본부에서 작성된 문서 4건을 새롭게 공개하면서 작성된 문서의 내란순응 여부 등에 대해 압박했다.

이날 공개한 문서들은 지난 2024년 12월 4일부터 6일 사이 작성된 것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북도의 대응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먼저 12월 4일 0시 30분 결재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소방본부장 긴급지시사항 '일일' 공문에는 '경사 등 중요시설 출입관리 및 보안 관리 강화' 지시가 포함돼 있었다"며 "당시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평상시 방호조치였을 뿐이라는 김 지사의 해명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소방본부 문서를 근거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내란 순응'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공개 토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다른 문서인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에는 12월 4일 새벽 2시 20분부터 40분까지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의원은 따라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전북도는 여전히 계엄 상황을 전제로 대응하고 있었다는 증거다"고 못 박았다. 특히 이 문건에는 "장기상황 대비, 원활한 상황처리를 위해 18명 자가 대기" 라고 적시돼 있는데 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새벽 4시 30분 계엄 해제를 발표한 이후에도 전북도는 계엄이 지속될 가능성을 상정하며 대응한 흔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가 준예산편성을 준비한 것도 본인의 역지 변명과 달리 계엄포고령 1호에 따른 도의회의 정치활동 금지 등 전제로 한 것이며 사실상 불법 계엄에 순응한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덧붙여 "김 지사는 12월 3

일 밤 11시 55분 도청에 도착해 12월 4일 새벽 1시 30분 청사를 떠났는데 도민의 대표가 1시간 30분만에 청사를 떠난 것이 위기 상황에 맞는 리더십인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 지사가 내란 동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문제 제기자가 책임지고 그만두어야 한다고 한 만큼 사실규명이 중요하다"며 "김 지사는 더 이상 숨지 말고 도민이 보는 공개 토론회에 나와 사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권희성 기자

김관영 도지사 "전북소방본부 문건 관련 해석, 사실과 다르게 왜곡"

이원택 의원 제기… "당시 대응, 통상적인 비상대응 체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6일 이원택 국회의원의 전북소방본부 문건 공개와 관련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행한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혹색선전의 어둠에서 벗어나 정당당당한 정책 대결의 장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문건과 관련한 해석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당시 대응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통상적인 비상대응 체계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먼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소방본부장 긴급지시사항 '일일'

문건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문서는 당시 소방본부장이 자체 판단에 따라 일선 소방관서에 전달한 지시 사항으로, 비상 상황 발생 시 일반적으로 내려가는 통상적인 비상대응 지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한 '도청사 청경 추가 배치나 '도청사 출입 보안 관리 강화' 등의 표현을 근거로 대응을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 "소방 관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민을 향한 행정 서비스 중단해서는 안 되는 중요 시설"이라며 "당시 조치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행

정·안전 대응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12월 4일 새벽 2시에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결과 보고' 문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문건은 당시 비상 상황에서 소방비상근무를 총괄하는 119상황실장이 주재한 상황 점검 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로, 회의 내용 역시 비상근무 점검과 관련된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문서에 포함된 '장기화 대비'라는 표현을 두고 계엄 상황이 지속될 것을 상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한 표준적인 대기 태세일 뿐"이라며 "이를 계엄 순응 의도로 연결하는 것은 비상

상황에서 도민 안전을 위해 근무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당일 도청을 지키기 위해 출근했던 수많은 공무원과 재난 대응을 위해 출동 태세를 강화했던 소방공무원들의 행동이 어떻게 내란 부화 행위로 매도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이원택 의원이 제안한 공개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도지사 후보 공식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정책 경쟁을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정책중심 경선으로 전북 미래 검증하자"

민주 안호영 의원 "전북의 미래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과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책 중심의 경선을 통해 전북의 미래 비전을 검증받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북도지사 경선은 전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과정"이라며 "정치적 공방이 아닌 정책 경쟁을 통해 도민 앞에서 비전과 역량을 검증받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전북 대전환을 위한 다섯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을 중부권 경제축으로 확장하고 에너지 대전환을 기회로 산업을 유지하며, 인공지능(AI) 기본도시와 한류특별시를 조성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전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춘 산업 전략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분산 배치를 통해 전북 이전을 제안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왔

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 반도체 산업 입지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전북이 에너지 생산지에 머무르지 않고 첨단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번 경선이 정치적 갈등 중심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경선은 민주당 관리당원과 도민들이 누가 정부와 함께 전북 발전을 이끌 수 있는지 평가하는 과정"이라며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선거가 특정 정치 이슈만을 둘러싼 공방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선의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와 함께 일할 정치적 정체성 △전북의 미래를 설계할 정책적 비전 △정책을 실현할 역량과 실행력 등이 후보 검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가 정책 방향과 전북의 산업 전략을 연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시와 반도체 등 국가 성장 산업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해 지방 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읽고 전북 산업 구조를 재생에너지 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중심의 경선을 강조하고 있다.

반으로 전환할 비전과 정책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도지사는 중앙정부와 정치적 철학을 공유하며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정비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전북이 국가 전략에서 주변으로 밀려날 수 있다며 민주당의 가치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이를 정책 발전 전략으로 연결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이번 전북도지사 경선은 마이너스 경제를 기록했던 지난 도정을 연장할 것인지, 과거 도정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전북을 만들 것인지 선택하는 과정"이라며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환을 통해 전북의 마이너스 경제를 끝내고 플러스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철저한 정책 검증과 정책 경쟁을 통해 누가 정부와 함께 전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 도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김제 통합 논의 몰랐다? 납득 어렵다"

나인권 김제시장 예비후보, 정성주 시장 발언 겨냥

더불어민주당 김제시장 경선에 출마한 나인권 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전주·김제 행정 통합 논의를 둘러싼 정성주 김제시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나인권 예비후보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주 시장이 지난 12일 전주 MBC와의 인터뷰에서 "김제시의회의 통합 추진 촉구 성명 발표 이후에야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김제와 전주의 통합논의가 있었던 3월 3일 오전 8시 국회의원 이원택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 자신도 참석했으며, 그 자리에서 정성주 시장이 통합추진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관계자들도 정 시장이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고 덧붙였다.

나 후보는 특히 김제시의회가 지난 9일 '김제·전주 통합 추진 촉구 성명'을 발표한 이후 시민들의 반발이 커진 상황을 언급하며, 정 시장의 인터뷰 발언이 시민들의 상처를 더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명 발표 과정과 관련해 "9일 오전 10시 김제시의회 의원 간담회가 열렸고 이후 자구 수정 등을 거쳐 오



후 1시께 성명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시 집행부의 보고 체계를 고려하면 시장이 이를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이어 정성주 시장을 향해 몇 가지 공개 질의를 제기했다. 먼저 3월 3일 오전 이원택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 실제로 참석했는지, 그 자리에서 김제·전주 통합 추진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 정 시장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커져 자 입장을 바꾸며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미래 위한 책임있는 리더십 필요"

전북 여성 100인, 김관영 도지사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전북자치도지사 경선이 임박한 가운데, 전북지역 여성 100명이 김관영 현 도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전북 여성 100인을 대표하여 모인 전정희 여성가족재단 전 원장과 함께하는 여성 10여명은 1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미래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김관영 도지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우리는 전북에서 아이를 키우고 일하며 지역 공동체를 지켜가는 여성들"이라며 "전북의 현재와 미래를 깊이 고민한 끝에 책임 있는 리더십이 전북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관영 도지사의 경제 성과와 추진력, 여성 친화 및 농업 정책을 주요 지지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이끌 적임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을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로 전환할 것"

이상길 정읍시장 예비후보, 이순신 유스호텔 건립 공약

이상길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현직 해심 공약으로 한 옥식 이순신 유스호텔·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을 제시했다. 이 공약은 현재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구 경찰서 부지에 컨벤션 기능과 숙박시설을 결합한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상길 예비후보는 "이 시설이 조성되면 정읍을 찾는 관광객이 머무르며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심 재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해심 공약'으로 한 옥식 이순신 유스호텔·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을 제시했다. 이 공약은 현재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구 경찰서 부지에 컨벤션 기능과 숙박시설을 결합한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상길 예비후보는 "이 시설이 조성되면 정읍을 찾는 관광객이 머무르며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심 재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 발전 위한 험한 길 마다하지 않을 것"

김주성 전 무주새마을협의회장, 무주군의원 출마 공약화

"무주를 향한 꺾이지 않는 신념을 가슴에 품고 무주 발전을 위해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6일 무주군 브리핑룸을 찾은 김주성 전 무주군 새마을협의회장(이하 전 협의회장)이 오는 6.3지방선거 무주군의회 가선거구(무주, 부남, 적상)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지자 10여 명과 함께 대동한 김주성 전 협의회장은 "민주당에 열정을

갖고 헌신했습니다. 4년 전 본인의 누를 벗고자 당을 위해 뛰었고 때론 당의 방패를 자처했습니다. 하나 돌아온 건 4년 전과 동일한 경선배제였다"라면서 "반평생을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을 이번 탈당하고 무소속이라는 거친 가시밭길을 걸겠다"고 언급했다. "역물한 것으로는 없게 하겠다"던 민주당 대표의 말에 서운함을 드러낸 김주성 전 협의회장은 "당의 공천장이 아니라 군민의 엄중한 선택을 받았다"고 피력하고 "무주를 위해 일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지지율 호소했다. /무주=송승희 기자